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및 공동제안자 9명 개인, 20개 단위

담당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제목 [취재요청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게이 커뮤니티 공동의 요구 기자회견

발송일 2024년 12월 24일(화) 총3쪽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내란사태가 아직도 수습되고 있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첫 변론이 이뤄지는 12월 27일 하루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한국의 게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공동의 요구 연서명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9명 개인, 19개 단위가 공동제안합니다. 공동제안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자]

개인: 김기환, 김승환, 김조광수, 김현구, 안찬혁, 윤가브리엘, 이종걸, 조삼식, 차세빈

단위: 마굿간(서울 이태원), 망원택TV, (사)신나는센터, 온스(서울 종로), IMONE(서울 종로), 종로호스트바상생협의회(지투, 테라, 제이제이, 악당, 식, 픽, 뮤, 훈, 런, 월페이퍼, 오퍼스, 텐션, 블루), 타이트홀(부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時bar(서울 신림), bar friends(서울 종로), Gorae(서울 신림), HE'S(서울 이태원), HIV/AIDS인권행동

알, IVANCITY, Kockiri(서울 이태원), Mbar(광주), UNDERBAR (서울 신림), VOLT(서울 신림), VOLTMIC(서울 신림), Zeus(대구)

3. 게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지금의 내란사태가 단순히 소수의 극우세력에 의해 초래된 사건일 뿐 아니라, 애초에 증오와 혐오로 점철된 극단세력이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더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란사태의 배경에는 시민을 혐오로 편가르고 배제하고 탄압하던 혐오의 정치가 있고, 이 혐오 정치를 키운 것은 여성-성소수자-장애인-노동 혐오 등을 방치해온 기성 정치입니다.

4. 게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그간 혐오 정치로부터 어떤 괴롭힘과 위협을 받아왔는지 밝히며, 왜 민주주의가 성소수자들에게 목숨과 같은 것인지, 왜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지 말하고자 합니다.

5. 이 날 기자회견에는 게이 개인, 게이 업소 사장, 지지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공동요구문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됩니다. <끝>

■ 식순

윤석열 퇴진을 위한 게이 커뮤니티 공동의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1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사회 : 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언

1. 박민영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 소주 (HIV/AIDS인권행동 알)

3. 천정남 (bar friends 사장)

게이 커뮤니티 공동의 요구문 낭독

낭독자: 코코넛(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

배윤우(HIV/AIDS인권행동 알)